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영호, 김중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덴타(협력)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3)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협동 목사/	문신현 황금란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질레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캐 나 다:	이성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영 국:	제인 음플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기도원 교역자/	김영식	독 일:	이바울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중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수,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차릭 푸레브, 양호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스 존 길, 타리크 지야
		중 동:	보나 시뚜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스트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동림 최중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흥남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환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희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락 윤부열 박중용 송영현 이성익 정영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종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효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용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현 낫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46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64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307장	다 같 이
기 도	조혁희 목사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23~24	사 회 자
찬 양	주께 감사해/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능력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84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 성찬예식 -

주일 오후 3시

사회/ 임학영 목사

대표기도	이미영 목사
성경봉독	골로새서 1:10~12, 요한복음 6:53~55/ 사회자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서승원 집사
설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이석규 목사

대표기도	나혜숙 권사
성경봉독	로마서 13:8~10/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임학영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조대희 목사

대표기도	강승표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7:11~17/ 사회자
찬양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41)/ 당회장님

2-9회 2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6월 20일(월) ~ 7월 10일(주일)
주제/ 성전이전, 만민하게수련회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정진영 목사	황금란 목사
주일 저녁예배	문신현 목사	장성식 목사
수요 예배	박광현 목사	박금미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정진영 목사	이성철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제 목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1)

본 문 : 말 3:7~10

신앙의 기초가 되고 최소한의 믿음의 증거인 십일조에 대한 개념과 유래, 그리고 십일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십일조는 너무나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는데도 진리를 몰라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일조와 헌물을 왜 드리는지 깨달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십일조의 개념과 유래

십일조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일조라는 하나님의 규례는 언제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십일조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식 규례로 공포되어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이 십일조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창 14:20, 28:22). 이처럼 정식 규례로 정해지기 이전에도 주관을 받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십일조를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했지요.

여기서 창고란 성전에 속한 창고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에는 말 그대로 육의 양식이 있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곧 많은 영혼을 먹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라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의 성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펼쳐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명하신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로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게 하셨지요. 그중 모세의 형 아론과 그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게 하셨고, 아론 자손 이외의 레위족에게는 성전을 지키는 일이나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등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토지를 기업으로 얻지만 레위 지파는 열외로 기업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에는 토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와 기타 예물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지요(신 18:1~2).

오늘날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과 레위족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창고 즉 교회 재정이 채워지고 그중에서 주의 종과 레위족의 급여가 지급되지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경우에도 선교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야 하지요. 물론 자비량하여 선교비를 지원받지 않는 선교사의 경우는 다른 직장을 갖는 것이 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현금으로 나온 하나님의 재정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즉 영혼 구원과 직결된 일에만 지출해야 하지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의 급여 외에도 선교비, 교회의 각종 행사비, 성전 유지비, 구제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서 교회 재정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육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십일조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첫째로, 십일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일조는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8~9절에 보면 왜 십일조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일까요?

원래 우리가 땀 흘려 얻은 모든 소산 곧 10종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령 농부가 일 년 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내었습니다. 이때 “내가 수고하여 거두었으니 다 내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만으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을 씨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토양과 물,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서

서 싸이 트고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물론 산업도, 직업도 매우 다양한 오늘날은 소득을 얻는 경로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는 같습니다.

모든 산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결국은 근본 생명 자체가, 또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으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 받는 동안 각자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 곧 모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시고도 그중 십일조만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물 곧 십일조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의 마음이지요.

이러한 도적질 자체도 큰 죄이지만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큰 죄인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또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라 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데 왜 꼭 십일조를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주님께서서는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을 입고 이 1차원의 공간에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물질입니다. 소중한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 외에도 예배와 기도, 찬양, 찬송, 구제 등 표현의 방식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지요.

그러나 물질은 대부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에 비할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말씀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로써 십일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십일조를 하는 행위만 가지고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으로 십일조를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십일조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십일조 할 중심인데 진리를 잘 몰라서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일조는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고, 십일조를 하면 축복받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찬송, 봉사해도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거나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부끄러

운 구원도 진리를 몰라서 드리지 못 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비록 진리를 잘 몰라서 드리지 못했으나 진리를 깨닫는다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하지요.

둘째로, 십일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고(마 4:7),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고 했는데(히 11:6) 십일조만은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시험해 보고서라도 믿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껏 주고 싶으셔도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축복을 주시면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므로 축복을 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의 세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한 대로(갈 6:7)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줄 근거로 삼기 위해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심도록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 주시기 위해 최소한의 씨앗을 심게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십일조를 온전히 드릴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지요. 물론 축복받는 정도나 축복받는 때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잘하면 각종 질병과 재앙, 사고로부터 지켜 주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날이 영혼이 잘됨으로 천국의 더 좋은 처소를 침노하게 되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는 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19) - 예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욥

본 문 : 욥기 9:3~12

오늘은 예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욥의 말을 살펴보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지 예정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을 독재자로 오해한 욥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강박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행통한 자가 누구이라”(욥 9:3~4)

“쟁변하다”는 말은 “다투어 변론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쟁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과 경외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빛 자체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딤후 6:16, 요일 1:5, 신 32:4, 출 33:20).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기에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자신의 자녀들과 재물을 다 거둬가셨고 질병의 고통까지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거둬 가신 하나님 앞에 욥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에 담긴 구원의 섭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사망으로 갈 것을 아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만세 전에 예비하셨습니다(고전 2:7).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권세를 영원히 가질 줄 알고 악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원수 마귀 사단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니 죽임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수 마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로써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법을 어긴 대가로 자신의 권세, 곧 사람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장하는 권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므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고, 이러한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분쇄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한 힘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처럼 사랑의 섭리가 담긴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한 힘과 지혜로써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거역한다면 형통치 못하다 말하고 있지요.

욕의 말대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거역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진리의 권면을 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2. 예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욥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욥 9:5~10)

하나님께서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공연히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옮긴다든가, 이유 없이 땅을 움직여 기둥을 흔드는 분은 아닙니다.

욕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무조건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 즉 ‘예정의 하나님’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은 의롭고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무지했기에 여전히 자신은 까닭 없는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해와 달을 멈추게는 하셨지만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 적은 없지요.

밤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자리마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별들이 각각 위치에서 변함없이 있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별들을 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별 하나까지도 영계의 법칙에 맞추어 적절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북두성이란 큰곰자리의 북두칠성을, 묘성은 황소자리 성좌에 위치한 별무리를,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 중앙에 나란히 있는 세 개의 큰 별을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별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해와 달, 모든 별들을 만드시되 그들 사이에 운행의 질서와 법

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옴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강하시므로 마음대로 별들을 봉하시며 온갖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옴에게도 예정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옴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정의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정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 등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역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유효하다고 말하지요.

반대로 예지 예정이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옴의 말처럼 예정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무조건 정해 놓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지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자유의지 가운데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으신 예지 예정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남방의 밀실”이란 이 땅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옴이 볼 때 북쪽보다는 남쪽이 따뜻하고 꽃도 많이 핍니다. 또 남쪽에서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니 옴은 ‘아마도 남방에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밀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비롯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고성이 무너지는 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 제단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 희한한 일과 기이한 일들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마음대로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질서와 공의,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옴은 예정의 하나님이라 오해하고 있기에 자신 역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3. 물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한 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옴 9:11~12)

옴은 하나님께서 본인 앞에 지나가셔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일은 적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니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 유창한 방언도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뜨거움도 느끼며 치료도 받고 각종 은사도 받는 등 영적인 체험도 하지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만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겨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즉 성령이 역사하시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옴은 이러한 체험이 없고 느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옴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다 빼앗아 가져갔으니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어떻게 이처럼 막무가내로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도 없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시면 찾게 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옴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문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꿈이나 환상, 성령의 음성, 영감으로 교통을 이루며 역사해 가지지요(암 3:7). 사랑의 간구,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물음에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 기울이시고 자상하게 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하시는데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구약 시대와 달리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 이기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

읽을 말씀 / 요한일서 3:21~22

외울 말씀 / 요한일서 3:21

참고 말씀 / 마가복음 16:17~18

교육 내용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믿음의 5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아예 반항하거나 빗나가고, 어떤 자녀는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은 아니지만, 자녀의 도리를 좇아 복종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해 드립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이보다 더 승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꼭 맞게 순종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스러워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까지 헤아려 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명하신 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왜 그것을 명하시는지’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명하신 것보다 넘치도록 순종합니다. 어느 한순간 넘치는 행함을 보이거나 가끔 진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지요. 그런 모습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승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 온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무엇을 구하든 즉시 응답받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명철의 길이 보이고, 어떤 질병 균이나 약한 것이 틈타지 않지요.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약함도 고치며 귀신도 쫓아냅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해를 입히지 못하며, 원수 마귀가 송사할 만한 죄악이 없으니 시험 환난을 가져다줄 수도 없습니다.

2. 믿음의 5단계 특징

1)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것에 맞게 행하는 차원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명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오직 예와 아멘 뿐이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4단계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믿음의 5단계와는 차이가 납니다.

가령, 어머니가 출근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청소해 놓아라.” 했을 때 어떤 자녀는 억지로 청소하는 반면 착한 자녀는 어머니를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합니다. 이보다 더 선한 자녀는 “어머니가 일하고 오시면 피곤할 텐데 내가 더 도와드릴 것이 없나?” 하고 살피지요. 청소뿐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사랑스러운 정도를 지나서 자녀가 너무나 대견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는 죄악이 없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마저 헤아려 순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넘치게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2) 무수한 기도를 쌓아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가득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가고자 무수한 기도를 쌓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같은 기도를 쌓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 4:48)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셨지요. 우리도 믿음의 5단계에서 불같이 기도하여 권능을 받으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 줄 때 사람들의 생각이 깨지고 마음 문이 열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 온 집에 충성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

라” 했고, 7절에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고, 온 집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였습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되 모든 분야에서 주어지는 대가 이상으로 넉넉히 감당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 중에는 중요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명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모든 분야에 마음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 집의 충성입니다. 믿음의 5단계, 즉 온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명이 있어도 소홀함 없이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며 열매를 내지요. 이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

거룩한 성, 영광의 성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계 21:2). 새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에는 각각 세 개씩 총 열두 개의 진주 문이 있고, 문마다 한 천사가 지키고 있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집은 복층이며 정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3천층 집도 정금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과는 차이가 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있으며 각 보석에서 이중, 삼중 빛을 발산하지요. 집주인이 온 영으로 깊이 들어간 정도와 충성한 공로에 따라, 행적과 취향에 따라 특색 있고 다채롭습니다. 집을 두르고 있는 영광의 빛과 장식된 보석만 보아도 집주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알 수 있지요.

누구든지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면 주어지는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곳에서는 호수, 정원, 동물원, 골프장, 무도회장 등 자신이 원하는 부대시설이 모두 개인의 소유로 주어집니다. 구름 자가용도 개인 소유로 받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고 갖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을 기억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넘치는 위로와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금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계 4:4 ; 딤후 4:7~8) 그 외에 많은 면류관이 주어지지요. 천사들은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그림자처럼 따르며 시중들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섬깁니다. 수종 드는 천사의 수도 온 영으로 깊이 들어간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 하는 믿음이다.
2. 믿음의 5단계를 이루면 천국 ()에 들어간다.
3. 믿음의 5단계 특징은
 첫째, 자신의 ()을 버리기까지 온전히 ()한다.
 둘째, 무수한 ()를 쌓아 기사와 ()을 행한다.
 셋째, ()에 충성한다.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온 영'이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 안에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상태를 말한다. 바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모습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로서 영이 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차원이다. 온 영을 이루어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곧 권능이 따른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영혼육(하)」 한국어가 오디오북으로 발간되었고, 「권능」 스웨덴어가 종이책으로, 「나의 삶 나의 신앙1」 헝가리아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선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영어(721호), 중국어(595호), 우르두어(95호), 말레이시아어(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저녁예배 시 성찬예식이 있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환자를 위한 랜선 기도회」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준비찬양: 오전 10시 50분)
- 「만민하계수련회, 성전이전, 2022년 기도제목」을 위한 작정 다니엘철야가 7월 10일(주일)~ 30일(토)까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준비찬양: 오후 8시 40분)
- 2022 만민하계수련회가 8월 1일(월)~ 3일(수)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 ※ 주제: 불가능이 없는 믿음(막 9:23)
 - ※ 강사: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이복님 원장
 - ※ 회비접수: 7월 3일(주일)~7월 31일(주일), 접수장소: 신학교 2층 회의실, 사택 예배실
 - ①주일 대예배 후 ②주일 오후 2시~2시 50분 ③주일 저녁예배 후
 - ※ 온라인 접수는 7월 4일(월)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 회비 접수자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성도님들께는 추첨을 통해 치킨세트를 드립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교회 소식**

마산만민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이복님 원장 초청 성령 충만기도회

※ 일시: 7월 6일(수) 오후 7시

※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특송: 윤권능 형제

• **교구 소식**

5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7월 7일(목) 오후 8시 30분 이춘우 조장 덕(설교 이석규 교구장)

11교구 여장년 연합예배/ 7월 6일(수) 오전 11시 신학교 3층 예배실(설교 조은영 교구장)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해외지교회 성도(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7월 3일	대예배	1, 2, 3, 4교구	10, 11, 12, 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5, 6, 7, 8, 9교구, 장로회	중국대교구
7월 10일	대예배	5, 6, 7, 8, 9교구	1, 2, 3, 4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0, 11, 12, 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7월 17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5, 6, 7, 8, 9교구
	저녁예배	10, 11, 12, 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 2, 3, 4교구
7월 24일	대예배	10, 11, 12, 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 2, 3, 4교구	5, 6, 7, 8, 9교구

《 지성전 기도회 일정 》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

날 짜	교구 / 지성전	교구장	구분
7월 3일	14교구 분당지성전	서덕분 전도사	2대대
7월 10일	21교구 인천지성전	이풍근 목사	3대대
7월 17일	14교구 강동지성전	서덕분 전도사	2대대
7월 24일	20교구 수원지성전	이영인 전도사	3대대
8월 7일	21교구 부평지성전	이풍근 목사	3대대
8월 14일	15교구 북부지성전	문신현 목사	3대대
8월 21일	18교구 안산지성전	황미경 전도사	3대대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7/3 일

- 00:00 - '믿음의 분량 3' 이재록 목사
- 05: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1' 이수진 목사
- 17:00 - '천국 26' 이재록 목사
- 18:30 - '선택' 장성식 목사

7/4 월

- 01:00 - '영적 예배' 이수진 목사
- 07:05 - '천국 27' 이재록 목사
- 10:50 - 환자를 위한 랜선 기도회 (생방송)
- 13:00 - '욥기 강해 11' 이수진 목사
- 15:30 - '지옥 1'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30' 이재록 목사

7/5 화

- 01:00 - '그리스도 예수의 선행 일꾼 2' 이수진 목사
- 08: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24' 이재록 목사
- 10:20 - '심고 거두는 법칙 4' 이재록 목사
- 12:05 - '일곱교회 9' 이재록 목사
- 14:00 - '믿음의 분량 4'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2' 이재록 목사
- 18: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59

7/6 수

- 00:00 - '믿음의 분량 6' 이재록 목사
- 01:00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39'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2:05 - '일곱교회 10' 이재록 목사
- 13:00 - '마음발을 개간하자 2'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3' 이재록 목사
- 17:00 - '천국 29'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45' 이재록 목사

7/7 목

- 01:00 - '욥기 강해 19' 이수진 목사
- 07:05 - '천국 30'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2' 이재록 목사
- 10:20 - '일곱 영 2' 이재록 목사
- 12:05 - '일곱교회 11' 이재록 목사
- 13:00 - '마음발을 개간하자 3'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4' 이재록 목사
- 19:20 - '요한일서 강해 42' 이수진 목사

7/8 금

- 08:00 - '창세기 강해 3' 이재록 목사
- 10:20 - '일곱 영 3' 이재록 목사
- 14:00 - '믿음의 분량 7' 이재록 목사
- 17:00 - '천국 31'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6
- 20:40 - 러시아 연합대성회 1

7/9 토

- 07:05 - '천국 32' 이재록 목사
- 10:00 - '온전한 믿음' 이재록 목사
- 12:05 - '일곱교회 13'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91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 (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번, 41번(영어), 42번(영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아침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Jul. 3(Sun.)

(Psalm 50:23) “He who offers a sacrifice of thanksgiving honors Me; And to him who orders his way aright I shall show the salvation of God.”

• Jul. 4(Mon.)

(Matthew 19:26) “And looking at them Jesus said to them, “With people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 Jul. 5(Tue.)

(1 Thessalonians 2:19) “For who is our hope or joy or crown of exultation? Is it not even you,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at His coming?”

• Jul. 6(Wed.)

(Amos 8:11)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GOD, “When I will send a famine on the land, Not a famine for bread or a thirst for water, But rather for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 Jul. 7(Thu.)

(Psalm 84:11) “For the LORD God is a sun and shield; The LORD gives grace and glory; No good thing does He withhold from those who walk uprightly.”

• Jul. 8(Fri.)

(Deuteronomy 10:13) “And to keep the LORD’S commandments and His statutes which I am commanding you today for your good?”

• Jul. 9(Sat.)

(Proverbs 10:20) “The tongue of the righteous is as choice silver, The heart of the wicked is worth little.”

금주의 성경구절

7월 3일(주일)
(시 50:26)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7월 4일(월)
(마 19: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7월 5일(화)
(살전 2: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7월 6일(수)
(암 8:1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7월 7일(목)
(시 84: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7월 8일(금)
(신 10:13)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7월 9일(토)
(잠 10:20)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후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수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노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라/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قا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내기에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도/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사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맑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일곱교회

사도 요한을 통한 주님의 간절한 의침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의 참모습을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한 의침.

영을 벌의 비명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간 2022. 7. 01. ~ 7. 31.

7월 추천도서

#유리북이 : www.urimbooks.com #유리북 : facebook.com/urbooks17 #블로그 : blog.naver.com/ur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계편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공부야, 놀자!

만나Time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미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미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